

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18. 2. 7.(수) 조간	대변인실	044-203-6588
배포일시	2018. 2. 6.(화)		
담당부서	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	과장 이강복, 사무관 나지인 (044-203-6290) 사무관 유가희 (044-203-6227) 주무관 이경민 (044-203-6269)	
	한국장학재단	부장 김중순, 팀장 최동성 (053-238-2260)	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국가장학금,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! -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-

❖ '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주요 내용

- ▶ 실질적 반값등록금 수혜 인원 대폭 확대, 전체 대학생의 28% 수혜
· '17년 52만 명 → '18년 60만 명(전년 대비 8만 명 증가)
- ▶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해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
- ▶ 대학생 소득인정기준 상향(공제액 70만 원 → 100만 원)
- ▶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에게 『다자녀장학금』 지원
- ▶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폐지,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(B학점→C학점)

❖ '18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: 2. 12.(월) 09:00 ~ 3. 8.(목) 18:00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)는 학생·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“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”을 확정·발표하였다.

- '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 증액된 3조 6,8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, 저소득층·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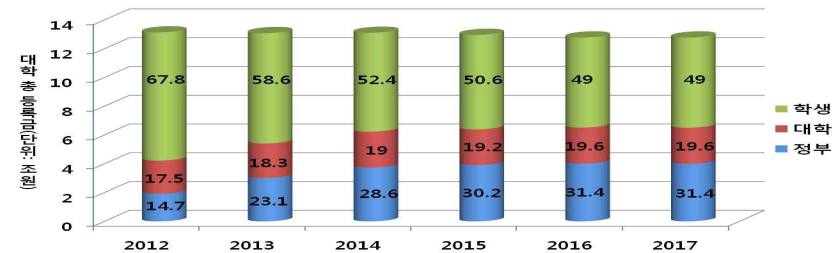
※ 예산(단위: 조원) : ('12년) 1.75, ('13년) 2.77, ('14년) 3.45, ('15년) 3.6, ('16년) 3.65, ('17년) 3.63

□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, 국민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여론을 반영하였다.

*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1순위가 등록금 부담 경감(29.5%) 【KED 교육여론조사 결과('17.12월)】

- 그간, 정부·대학이 51% 수준의 재정 분담을 통해 국민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나,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.

【 '12 ~ '17 주체별 등록금 부담 비율 】



- 이에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,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, 소득 구간 체계 개편, 수혜자의 만족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하였다.
-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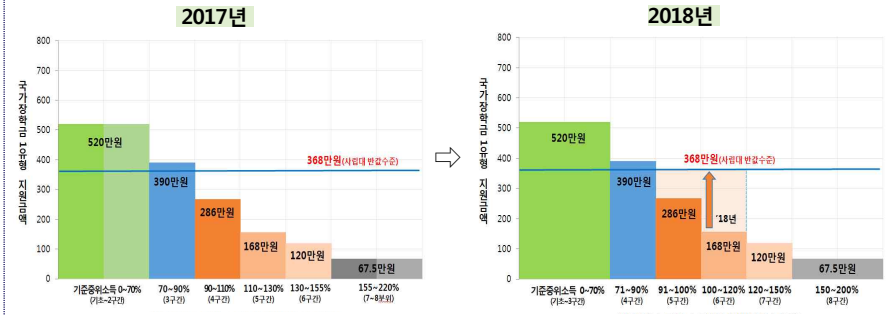
□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

-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'17년 약 52만 명 수준에서 '18년 약 6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한다.
-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 원, 5구간 168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,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.
- 이에 올해는 5구간, 6구간으로 조정하여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(368만 원)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*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한다.

* ('17년) 4구간 286만 원, 5구간 168만 원 → ('18년) 5·6구간 368만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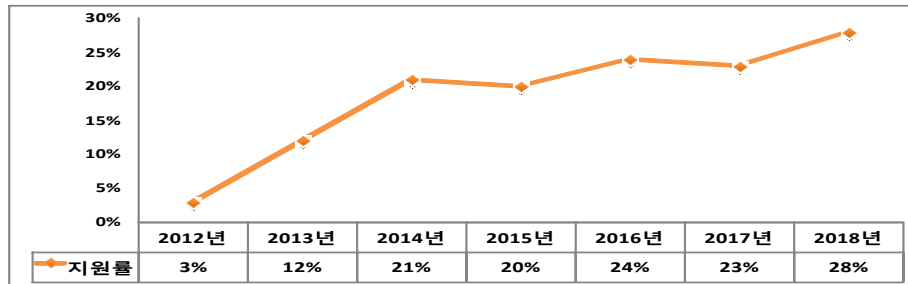
<< '17년 ~ '18년 반값등록금 지원 단가(I유형) 인상 계획 >>



* (기준 중위소득)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수준과 전국민 100명 중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3년간 소득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기준 값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

-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'17년 23%에서 '18년 28%, 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 대비 '17년도 60.7%에서 '18년 74.5%로 높아진다.

<< 재학생수 대비 반값등록금 수혜율 >>



※ (산출산식) 반값수혜인원 / 재학생 * '18년 추계인원은 '17년 1학기 지원인원 기준 및 학령인구 감소분 반영

- 아울러,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조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수혜자 확대,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.

※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('17.7월) : (재정투자)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(+1.0조 원)

②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한 수혜예측성 제고

- 그간 국가장학금 “소득구간” 기준이 매년 달라져 장학금 수혜 예측이 어려웠으나, 소득구간 재구조화를 통해 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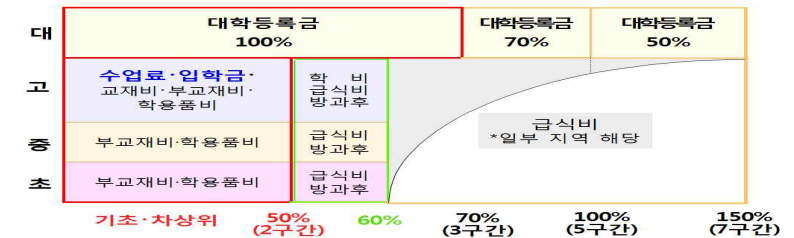
< 소득구간 재구조화 및 지원단가 비교표 >

2017년			2018년		
구분	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	단가(만원)	구분	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	단가(만원)
기초·차상위	자격기준	520	기초·차상위	자격기준	520
1구간	30%	520	1구간	30%	520
2구간	70%	520	2구간	50%	520
3구간	90%	390	3구간	70%	520
4구간	110%	286	4구간	90%	390
5구간	130%	168	5구간	100%	368
6구간	155%	120	6구간	120%	368
7구간	180%	67.5	7구간	150%	120
8구간	220%	67.5	8구간	200%	67.5
9구간	290%	-	9구간	300%	-
10구간	291% ↑	-	10구간	301% ↑	-

- 또한, 초·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도 일치* 시켜 초·중등·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.

* 소득 2구간을 기준 중위소득 50%(교육급여 기준)에 일치

< '18년 초·중·고·대학 교육복지 연계 모형 >



- 아울러,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·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장학금을 지원한다.
- 중·고교 단계에서의 꿈사다리 장학금*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**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.

* 저소득층(기초, 한부모, 차상위) 중1때 선발하여, 중2~고3까지 장학금을 지원

**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계열별(이공계, 인문100년, 예술체육비전 장학금) 지원

< 중·고등학교 → 대학 장학제도 지원 트랙(안) >



- 이번 개편된 소득구간은 올해부터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으로서, 초·중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신의 장학금 수혜 예측이 가능해져 학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③ 대학생의 소득 공제액 43% 확대

- 대학생의 교육비·주거비·생활비 등의 지출 비용을 현실화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**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**(70→100만 원)한다.
※ 대학생 월평균 지출액 102.2만 원 적용(금융위 실태조사 발표, '17.11월)
- 이번 개선으로 **최저임금 인상***으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**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**한다.
* 최저임금 인상 : ('17) 시급 6,470원 → ('18) 7,530원(16.4% 인상)

④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

- 그동안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, **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**(88년생 이후)에게 지원해 '17년 대비 12만 명*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. *('17년 약 5만 명 → ('18년 약 17만 명 예상
- 기초·차상위계층 및 3구간(기준 중위소득 70%이하)은 520만 원, 4~8구간(기준 중위소득 200%이하)는 450만 원을 지원한다.

⑤ 국가장학금 II 유형(대학 자체노력 대응지원 장학금) 지원방식 개선

-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규모 대비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가장학금 II 유형도 소득연계 지원이 강화되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였다.
-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, 최근 일부 대학*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처럼 **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**한다.
* 성적장학금 폐지 대학 : 고려대('16.1학기), 서강대('18.1학기)

⑥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강화
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**완화**하고,
-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.
※ 기준중위소득 70%(소득 3구간) 이하 학생들은 C학점 이하일 경우 2회에 한하여 구제

⑦ 국가장학금 수혜 기회 보장



- 그간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제한했으나, 앞으로 **정규학기 내 지원횟수***를 보장한다.
*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 : 2년제(4회), 3년제(6회), 4년제(8회), 5년제(10회), 6년제(12회)
- 졸업유예, 복수전공, 편·입학 등으로 4년제(8학기)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경우에도 총 8회 범위에서 지원하다.
- 아울러, 소득구간을 학기별로 조사했던 방식에서 **연 1회 조사로 개선**하고, 필요시 재신청·재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.

【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·접수】

- 한국장학재단(이사장 안양옥)은 **2월 12일(월)부터 3월 8일(목)**까지 누리집(www.kosaf.go.kr)을 통해 '18학년도 1학기 2차 신청·접수받는다.
- 2차 신청 대상은 **신입*·편입·재입학·복학생**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.
* 특히, '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대상 대학'에 입학금을 납부한 신입생은 '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입학금 중 실비용분 지원 가능 (소득 기준 미적용)
- 재학생 중에서도 '**18년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***에 해당되는 경우,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.
* 초과학기 재학생, 기초·차상위 C학점 이상,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, 다자녀가정 대학생
-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**한국장학재단 누리집**(www.kosaf.go.kr)과 **전화상담실**(☎1599-2000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
-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
-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저소득층 학생이 중·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·중등·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추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1부.

	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장학과 나지인, 유가희 사무관(☎ 044-203-6290, 6227), 한국장학재단 최동성 팀장(☎ 053-238-226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-